

• 학습 목표

- 👁 문장 성분(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보어)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 👁 상황에 맞는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 주체 높임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 어미와 문장부호를 문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구별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1. 품사와 문장 성분의 구분
2. 조사를 정확하게 쓰기
3. 높임 표현 정확히 쓰기
4.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문장부호 바르게 쓰기
5.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구별하기

학습내용

품사와 문장 성분의 구분

01 품사란?

- 단어를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 국어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가지이다.
- 이 가운데 명사·대명사·수사는 체언, 동사·형용사는 용언에 속한다.

- (1) 명사: 사람·사물·장소의 이름 (학생, 책, 학교)
- (2)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나, 우리, 이것, 누구)
- (3)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하나, 둘, 첫째)
- (4) 동사: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가다, 먹다, 읽다)
- (5)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예쁘다, 크다, 푸르다)
- (6) 관형사: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말 (새, 흰, 첫, 한)
- (7) 부사: 주로 용언이나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 (매우, 빨리, 잘)

(8) 조사: 다른 말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가, 은/는, 을/를)

(9) 감탄사: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말 (아, 어머, 네, 여보)

02 문장성분이란?

- 문장 속에서 각 말이 맡는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1) 주어: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철수가, 꽃이, 우리는)

(2) 서술어: 주어의 동작·상태·성질을 설명하는 말 (간다, 예쁘다, 학생이다)

(3)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책을, 밥을, 친구를)

(4)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뜻을 보충하는 말 (학생이, 의사가, 문제가)

(5) 관형어: 체언을 꾸며 주는 말 (새 책, 예쁜 꽃, 세 사람)

(6) 부사어: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말 (매우, 빨리, 학교에서)

(7) 독립어: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아, 어머, 여러분)

03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

- 품사와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다.
-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질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이다.
- 예를 들어 학생은 품사로써 명사이고,
"학생이 공부한다"에서는 주어, "나는 학생을 만났다"에서는 목적어가 된다.

04 조사로 문장 성분 판별하기

- 문장 성분은 조사와 함께 보면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주어: 보통 '이/가', '은/는'이 붙는다. (철수가, 친구는)
- 목적어: 보통 '을/를'이 붙는다. (책을, 밥을)
- 부사어: '에, 에서, (으)로, 와/과 함께' 등이 붙어 서술어를 꾸며 준다. (학교에서, 집에, 버스로)
-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가'가 붙는 경우가 많다. (학생이 되다, 학생이 아니다)



꼭 확인하기

- 품사는 단어의 종류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다.
- 문장 성분은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문장 전체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 서술어를 먼저 찾으면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구별하기 쉽다.
- 조사를 보면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되다', '아니다' 앞의 '이/가'는 보어에 해당한다.

문제

[문항 1] 다음 중 명사로만 묶인 것은?

- ① 학생, 책, 학교
- ② 읽다, 먹다, 가다
- ③ 매우, 빨리, 잘
- ④ 나, 우리, 이것

[문항 2] 다음 중 부사는?

- ① 잘
- ② 학생
- ③ 예쁘다
- ④ 첫째

[문항 3]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영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영희가
- ② 도서관에서
- ③ 책을
- ④ 읽었다

[문항 4]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는?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 ① 나는
- ② 친구에게
- ③ 편지를
- ④ 썼다

[문항 5]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는?

동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 ① 동생은
- ② 매일
- ③ 아침
- ④ 일어난다

[문항 6] 다음 문장에서 '도서관에서'의 문장 성분은?

영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주어
- ② 목적어
- ③ 부사어
- ④ 서술어

[문항 7]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학생이'의 문장 성분은?

그는 성실한 학생이 되었다.

- ① 주어 ② 목적어 ③ 보어 ④ 부사어

[문항 8] 다음 중 목적어가 없는 것은?

- ① 나는 책을 읽는다 ② 그는 학교에 간다
③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 ④ 그녀는 편지를 썼다

[문항 9]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하늘이 정말 푸르다.

- ① 동작 ② 성질 ③ 대상 ④ 장소

[문항 10] 다음 중 조사와 문장 성분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이/가 – 주어 ② 을/를 – 목적어
③ 에, 에서 – 부사어 ④ 은/는 – 서술어

01 조사란?

- 조사는 명사나 대명사 같은 말 뒤에 붙어, 그 말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드러내거나 뜻을 더 해 주는 말이다.
- 이/가, 은/는, 을/를, 예, 에서, 와/과, 에게, (으)로 등이 있다.

02 조사를 사용할 때 고려할 점

- 조사는 그 말이 서술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 비슷해 보이는 조사라도 문장에서 나타내는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하는 대상인지, 동작의 대상인지, 장소인지, 방향인지, 수단인지를 생각하여 적절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특히 예/에서, 에게/한테, 와/과, (으)로는 자주 헷갈리므로 쓰임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 와 / 과 :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 에게 / 한테 : 동작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 예 : 도착하는 곳, 있는 곳, 시간을 나타낸다.
 - 에서 : 행동이 일어나는 곳을 나타낸다.
 - (으)로 : 방향이나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 을 / 를 : 동작의 대상을 나타낸다.



꼭 확인하기

- 조사는 명사가 문장에서 맡는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 비슷해 보이는 조사도 실제로 나타내는 관계가 다르다.
- 그 명사와 서술어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함께/대상/장소/수단) 먼저 따져보면 알맞은 조사를 고를 수 있다.
- 헷갈릴 때는 조사를 바꿔 넣어 보고 어색한지 확인한다.



[문항 1] 다음 중 조사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 | | |
|-----------------|------------------|
| ① 나는 동생과 숙제를 했다 | ② 나는 동생을 숙제를 했다 |
| ③ 나는 동생에 숙제를 했다 | ④ 나는 동생한테 숙제를 했다 |

[문항 2] 다음 중 조사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 ① 나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
- ② 나는 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갔다
- ③ 나는 친구를 영화를 보러 갔다
- ④ 나는 친구에서 영화를 보러 갔다

[문항 3]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조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도서관() 공부했다.

- ① 로
- ② 에
- ③ 에서
- ④ 와

[문항 4]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조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아침 일찍 학교() 갔다.

- ① 에
- ② 에서
- ③ 와
- ④ 를

[문항 5]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조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버스() 학교에 갔다.

- ① 에
- ② 로
- ③ 를
- ④ 와

[문항 6] 다음 중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 ①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다
- ②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 ③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④ 친구에게 함께 산책을 했다

[문항 7]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조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동생() 장난감을 주었다.

- ① 가
- ② 를
- ③ 에게
- ④ 에서

[문항 8] 다음 중 조사가 자연스럽게 쓰인 문장은?

- ① 그는 강의실에서 발표를 했다
- ② 그는 강의실에 발표를 했다
- ③ 그는 강의실을 발표를 했다
- ④ 그는 강의실과 발표를 했다

[문항 9] 다음 중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 ① 이 문제는 나에게도 어렵다
- ② 이 문제는 나와도 어렵다
- ③ 이 문제는 나를도 어렵다
- ④ 이 문제는 나로도 어렵다

[문항 10] 다음 중 조사와 그 의미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와/과 – 함께하는 대상
- ② 에게/한테 – 동작이 미치는 대상
- ③ 에서 –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
- ④ 을/를 – 방향이나 수단

01 주체 높임이란?

-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여 나타내는 표현을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 "선생님이 오신다"에서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다.

02 주체 높임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POINT 주격 조사 '이/가'를 '께서'로 바꾼다.

POINT 일반 어휘를 높임 어휘로 바꾼다.

(이름 → 성함, 밥 → 진지, 나이 → 연세, 집 → 댁, 먹다 → 드시다/잡수시다)

POINT 서술어에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넣는다.(가시다, 읽으시다)

03 높임 표현을 쓸 때 주의할 점

- 높임 표현은 문장 속 주체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를 높이는 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주체 높임은 '-시-', 높임 어휘, '께서' 등으로 나타난다.
- 이 요소들이 언제나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문장에 맞게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오신다/아버지는 댁에 계신다/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는 보통 '-시-'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내일 학교에 가십니다"와 같은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



꼭 확인하기

- 높임 표현은 문장 속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 높임은 '-시-', 높임 어휘, '께서' 등으로 나타난다.
- 이 요소들이 항상 모두 쓰이는 것은 아니며, 문장에 맞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보통 '-시-'를 쓰지 않는다.



[문항 1] 다음 중 높임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할아버지가 밥을 먹는다
③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

- ②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④ 할아버지가 진지를 드신다

[문항 8] 높임 표현을 쓸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 ① 문장의 길이
- ② 높일 대상이 누구인지
- ③ 단어의 글자 수
- ④ 문장의 첫 단어

[문항 9] 다음 중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께서'는 주체를 높이는 데 쓰인다
- ② '-시-'는 서술어에 넣어 높임을 나타낸다
- ③ 높임 어휘를 쓰면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 ④ 높임 표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쓴다

[문항 10]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 ②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 ③ 나는 신발을 신으신다
- ④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셨다

01 연결어미

- 연결어미는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이어 주는 말이다.
- 연결어미는 앞뒤 내용을 이어 주면서 배경, 이유, 대비, 조건 등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 비가 오지만 나갔다.
 - 시간이 없어서 서둘렀다.
 - 날이 밝으면 출발하자.

02 연결어미 '-는데'와 의존명사 '데'

- '-는데'는 앞 내용을 배경으로 뒤 내용을 잇는 연결어미로 붙여 쓴다. 반면 '데'가 장소나 상황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일 때는 앞말과 띄어 쓴다.
- 연결어미와 의존명사는 앞에 오는 말의 형태를 보면 구별할 수 있다. 연결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쓰이지만 의존명사는 앞말이 활용된 형태로 꾸며주는 말이 온다.
 -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연결어미/오다 + -는데)
 - 학생인데도 예의가 바르다. (연결어미/학생이다 + -는데)
 -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다. (연결어미/피곤하다 + -는데)
 - 갈 데가 없다. (의존명사/가다 + -ㄴ 데)
 - 모르는 데가 많다. (의존명사/모르다 + -는 데)
 - 불편한 데가 있으면 말해라. (의존명사/불편하다 + -ㄴ 데)

03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말이다.

- 문장의 목적에 따라 끝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 평서형 : 사실을 알리는 말 (오늘은 날씨가 좋다.)
 - 의문형 : 묻는 말 (오늘은 날씨가 좋니?)
 - 명령형 : 시키거나 부탁하는 말 (문을 닫아라. / 조용히 해 주세요.)
 - 청유형 : 함께하자고 권하는 말 (같이 가자. / 함께 읽읍시다.)

04 문장부호

- 문장부호는 문장의 뜻과 느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데 쓰인다.
- 공식적인 글에서는 물음표나 느낌표보다 마침표를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가 많다.
 - 마침표(.) : 설명하거나 차분히 말할 때, 공손하게 요청할 때
 - 물음표(?) : 질문할 때
 - 느낌표(!) : 감탄이나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 문 제

④ 가자

[문항 6] 다음 중 함께하자고 권하는 말은?

- ① 책을 읽는다 ② 책을 읽니 ③ 책을 읽어라 ④ 책을 읽자

[문항 7] 다음 중 묻는 말은?

- ① 지금 출발하자 ② 지금 출발한다 ③ 지금 출발하니 ④ 지금 출발해라

[문항 8] 다음 중 공식적인 안내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조용히 해 주십시오? ② 조용히 해 주십시오!
③ 조용히 해 주십시오. ④ 조용히 해 주십시오,,

[문항 9] 다음 중 문장부호 사용이 어색한 것은?

- ① 문 좀 닫아 줄래? ②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③ 모두 자리에 앉아라? ④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항 10] 다음 중 문장부호의 쓰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에는 물음표를 쓴다 ② 감탄이나 강한 감정에는 느낌표를 쓴다
③ 서술이나 요청에는 마침표를 쓴다 ④ 모든 문장 끝에는 느낌표를 쓴다

01 피동 표현이란?

- 피동 표현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의해 그 일을 당하는 표현이다.
-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가-'나 '-어지다'가 붙는다.
- (깎이다, 닫히다, 열리다, 안기다, 찢어지다)

02 사동 표현이란?

-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가-, -우-, 추-'가 붙는다.
(먹이다, 앉히다, 살리다, 웃기다, 재우다, 돋우다, 낮추다)

03 구별하는 방법

- 주어가 스스로 하는지(능동), 당하는지(피동), 남에게 시키는지(사동)를 문장의 뜻으로 판단한다.

✓ 꼭 확인하기

- 피동문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이고, 사동문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문장이다.
- 피동과 사동 모두 특정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다.
- 피동인지 헷갈릴 때는 '누가 무엇을 당했는가'로 풀어서 생각해 본다.
- 사동인지 헷갈릴 때는 '누가 누구에게 시켰는가'로 풀어서 생각해 본다.

문제

[문항 1] 다음 중 피동 표현인 것은?

- ① 민수가 문을 닫았다 ② 문이 닫혔다 ③ 민수가 책을 읽었다 ④ 아이가 웃었다

[문항 2] 다음 중 사동 표현인 것은?

- ① 아이가 옷을 입는다 ②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③ 아이가 잠을 잔다 ④ 학생이 의자에 앉는다

[문항 3] 다음 중 피동문이 아닌 것은?

- ① 문이 열렸다 ② 나는 문을 열었다 ③ 편지가 읽혔다 ④ 범인이 잡혔다

• 학습 목표

- ☞ 문학의 개념과 갈래(시·소설·수필·희곡)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 ☞ 시의 운율, 행과 연, 심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 기법을 구별할 수 있다.
- ☞ 소설의 구성 요소와 서술 시점을 이해할 수 있다.
- ☞ 글을 읽고 중심 생각(주제)을 파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1. 문학의 개념과 갈래
2. 시의 특징(운율, 행과 연, 심상)
3. 다양한 수사법
4. 소설·수필·희곡의 특징과 주제 파악

학습내용 문학의 개념과 갈래

01 문학이란?

- 문학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 신문 기사나 설명서처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글과 달리, 문학은 상상력과 감정을 담아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준다.

02 문학의 네 갈래

- 문학은 크게 시, 소설, 수필, 희곡 네 가지로 나뉜다.

POINT 시 : 운율이 있는 짧은 언어로 감정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글

POINT 소설 : 꾸며낸 인물이 겪는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

POINT 수필 : 글쓴이가 자신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산문

POINT 희곡 :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할 것을 전제로,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글

03 갈래를 구별하는 기준

- 문학의 갈래는 형식과 내용 전개 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 운율과 행·연이 두드러지면 → 시
- 꾸며 낸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면 → 소설
- 실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글이면 → 수필
- 대사와 지문, 막·장 등이 나타나면 → 희곡

04 시조와 판소리계 소설

● 시조

고려 말에 형성되어 조선 시대에 크게 발달한 우리 고유의 정형시이다. 대표 작가로 윤선도(1587~1671)가 있으며, 자연 속의 삶을 노래한 「어부사시사」, 「오우가」 등을 남겼다. 윤동주, 김소월처럼 근현대에 자유시를 쓴 시인과는 구분된다.

●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작품들이다.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이 대표적이다. 콩쥐팍쥐처럼 비슷해 보여도 전래동화로 분류되어 판소리계 소설에 속하지 않는 작품도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꼭 확인하기

- 문학은 사실만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 갈래를 구별할 때에는 형식, 실제·허구 여부, 무대 상연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 대사, 지문, 막, 장이 보이면 희곡일 가능성이 크다.
- 줄거리라고 해서 모두 소설은 아니며, 실제 경험과 생각을 쓴 글은 수필일 수 있다.
- 갈래가 헷갈릴 때에는 먼저 시 / 소설 / 수필 / 희곡 가운데 어떤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 시조의 대표 작가는 윤선도이며, 판소리계 소설에는 춘향가·심청가·수궁가·흥보가·적벽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둔다.



[문항 1] 다음 중 운문에 해당하는 갈래는?

① 소설

② 시

③ 수필

④ 희곡

[문항 2] 다음 중 소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 있었던 일만 기록한다
- ② 꾸며낸 인물과 사건으로 이야기를 만든다
- ③ 대사와 지문으로만 구성된다
- ④ 반드시 운율이 있어야 한다

[문항 3] 다음 중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쓴다
- ②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쓴다
- ③ 인물과 사건이 반드시 꾸며져야 한다
- ④ 행과 연으로 나뉜다

[문항 4] 다음 중 희곡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글쓴이의 경험을 자유롭게 적는다
- ② 대사와 지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 ③ 운율이 있는 짧은 글이다
- ④ 서술자가 사건을 자세히 설명한다

[문항 5] 다음 글은 어떤 갈래에 가장 가까운가?

나는 중학교 때 처음 혼자 여행을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낮선 거리에서 길을 잃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스스로 판단하는 용기를 배웠다.

- ① 시
- ② 소설
- ③ 수필
- ④ 희곡

[문항 6] 다음 글은 어떤 갈래에 가장 가까운가?

민수는 창문을 열고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래전에 잃어버린 공책이 책상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 ① 시
- ② 소설
- ③ 수필
- ④ 희곡

[문항 6] 다음 글은 어떤 갈래에 가장 가까운가?

(무대가 밝아진다.)
영수: 이제 정말 시작된 건가?
지민: 그래, 더는 물러설 수 없어.

- ① 시 ② 소설 ③ 수필 ④ 희곡

[문항 8]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조 작가는?

- ① 윤동주 ② 윤선도 ③ 김소월 ④ 이상

[문항 9] 다음 중 판소리계 소설이 아닌 것은?

- ① 춘향가 ② 콩쥐팥쥐 ③ 심청가 ④ 흥보가

[문항 10] 다음 중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유로운 형식의 산문이다
② 고려 말에 형성되어 조선 시대에 크게 발달한 정형시이다
③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④ 근현대에 새로 만들어진 갈래이다

01 운율

-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감이다.
- 같은 소리, 비슷한 말의 짜임, 글자 수의 반복 등에서 운율이 생긴다.
- 운율이 있으면 시를 읽을 때 말맛이 살아나고, 느낌이 더 또렷하게 전해진다.

02 행과 연

- 시의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
- 몇 개의 행이 모여 이루는 하나의 덩어리를 연이라고 한다.
시인은 행과 연을 나누어 리듬을 만들고, 뜻의 흐름도 조절한다.

03 심상(이미지)

-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이나 모습이다.
- 시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손에 닿는 느낌, 냄새, 맛 등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POINT 시각적 심상: 보이는 모습이 떠오름

POINT 청각적 심상: 들리는 소리가 떠오름

POINT 촉각적 심상: 차갑다, 따뜻하다, 거칠다 같은 느낌이 떠오름

POINT 후각적 심상: 냄새가 떠오름

POINT 미각적 심상: 맛이 떠오름

04 공감각적 심상

- 공감각적 심상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 예를 들어 소리를 색깔로 나타내거나, 냄새를 촉감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푸른 종소리 →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
 - 차가운 목소리 →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



꼭 확인하기

-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감이다.
- 행은 시의 한 줄이고, 연은 몇 개의 행이 모인 단위이다.
-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이나 모습이다.
- 공감각적 심상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의 말로 표현한 것이다.
공감각적 심상인지 헷갈릴 때에는 어떤 감각을, 어떤 감각의 말로 나타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문항 1] 시에서 한 줄을 가리키는 말은?

- ① 연 ② 행 ③ 절 ④ 장

[문항 2] 몇 개의 행이 모여 이루는 하나의 덩어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행 ② 연 ③ 절 ④ 장

[문항 3] 다음 중 운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감이다
 ② 소설의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이다
 ③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희곡의 대사와 지문을 나누는 기준이다

[문항 4] 다음 중 심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문학 작품의 제목을 정하는 방법
 ②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
 ③ 이야기의 순서를 정리한 것
 ④ 글쓴이의 이름과 시대를 적은 것

[문항 5] 다음 표현에서 나타난 심상은?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 ① 시각적 심상만 있음 ②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
 ③ 후각적 심상 ④ 미각적 심상

[문항 6] 다음 표현에서 나타난 심상은?

멀리서 푸른 종소리가 들려왔다.

- ①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
- ② 촉각적 심상
- ③ 후각적 심상
- ④ 단순한 시각적 심상

[문항 7] 다음 중 공감각적 심상이 아닌 것은?

- ① 향긋한 웃음소리
- ② 푸른 종소리
- ③ 차가운 목소리
- ④ 넓은 운동장

[문항 8] 다음 중 행과 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행은 시의 한 줄이다
- ② 연은 몇 개의 행이 모인 단위이다
- ③ 시인은 행과 연을 나누어 리듬과 뜻을 조절할 수 있다
- ④ 행과 연은 소설에서만 쓰는 말이다

[문항 9] 다음 중 운율을 만드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같은 소리나 비슷한 짜임을 반복한다
- ② 등장인물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한다
- ③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길게 적는다
- ④ 무대 지시를 덧붙인다

[문항 10] 다음 중 심상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시각적 심상
- ② 청각적 심상
- ③ 서술적 심상
- ④ 촉각적 심상

01 수사법이란?

- 수사법은 생각이나 느낌을 더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표현을 꾸미는 방법이다.

02 대표적인 수사법

POINT 직유법

- ‘~처럼, ~같이,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
- 바람처럼 달린다.

POINT 은유법

- 비교하는 말을 쓰지 않고, A=B처럼 두 대상을 바로 이어 나타내는 방법
- 내 마음은 호수다.

POINT 의인법

-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방법
- 달이 웃는다.

POINT 과장법

-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 강하게 부풀려 나타내는 방법
-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POINT 반어법

-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뜻이 반대가 되게 표현하는 방법
- 참 잘도 잊어버렸구나.



꼭 확인하기

- 직유법과 은유법은 비교 표지의 유무로 구별한다.
- 반어법은 겉뜻과 속뜻이 정반대라는 점이 핵심이다.
- 비교 표지(~처럼, ~같이)가 있으면 직유, 없이 동일시하면 은유이다.
-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감정이 나타나면 의인, 사실보다 훨씬 부풀리면 과장이다.



[문항 1] 비교 표지 없이 'A는 B다'처럼 두 대상을 동일시하는 표현 기법은?

① 직유법

② 은유법

③ 의인법

④ 과장법

[문항 2] '~처럼, ~같이'와 같은 비교 표지를 사용하는 표현 기법은?

- ① 은유법
- ② 직유법
- ③ 반어법
- ④ 과장법

[문항 3] 다음 문장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① 은유법
- ② 직유법
- ③ 의인법
- ④ 반어법

[문항 4] 다음 문장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

- ① 직유법
- ② 은유법
- ③ 과장법
- ④ 의인법

[문항 5] 다음 문장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

- ① 은유법
- ② 과장법
- ③ 의인법
- ④ 반어법

[문항 6] 다음 문장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기다리느라 백 년은 지난 것 같았다

- ① 과장법
- ② 의인법
- ③ 직유법
- ④ 반어법

[문항 7] 시험을 망친 친구에게 “참 잘했다!”라고 말한 표현 기법은?

- ① 은유법
- ② 직유법
- ③ 반어법
- ④ 의인법

[문항 8] 다음 중 의인법의 핵심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비교하는 말을 사용한다
- ②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 ③ 실제보다 훨씬 크게 표현한다
- ④ 겉뜻과 속뜻이 반대가 된다

[문항 9] 다음 중 과장법이 사용된 문장은?

- ① 하늘이 파랗다
- ② 그는 하루에 눈물을 백 번도 넘게 흘렸다
- ③ 꽃이 피었다
- ④ 바람이 분다

[문항 10] 다음 중 표현 기법과 그 예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직유법 – 구름처럼 하얀 옷
- ② 은유법 – 내 마음은 호수다
- ③ 의인법 – 꽃이 활짝 웃는다
- ④ 반어법 – 파도가 바위처럼 단단하다

01 소설의 구성 요소

- 소설은 보통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POINT 인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

POINT 사건: 인물에게 일어나는 일

POINT 배경: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02 서술 시점

- 서술 시점은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가에 따라 나눈 것이다.
- 시점을 파악하면 작품을 누가, 어떤 자리에서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POINT 1인칭 주인공 시점

- '나'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일을 직접 말한다.

POINT 1인칭 관찰자 시점

- '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중심인물은 다른 사람이다.

POINT 전지적 작가 시점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알고 말한다.

POINT 3인칭 관찰자 시점

- '그', '그녀'처럼 서술하며,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 중심으로 보여 준다.

03 수필과 희곡

- 수필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쓴 글이다.
-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할 것을 생각하고 쓴 글로, 대사와 지문이 중심이 된다.

04 주제 파악하기

- 주제는 글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중심 생각이다.
- 한 문장만 보고 정하기보다, 반복되는 내용, 인물의 태도 변화, 마지막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꼭 확인하기

- 소설의 기본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 시점은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먼저 보면 파악하기 쉽다.
- '나'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아니며,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말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일 수 있다.
- 희곡은 대사와 지문, 수필은 실제 경험과 생각이 중심이 된다.
- 주제는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생각이며, 본문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



[문항 1] 소설의 3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인물 ② 사건 ③ 배경 ④ 운율

[문항 2] '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중심인물은 다른 사람인 시점은?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문항 3]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여러 인물의 마음까지 모두 알고 이야기하는 시점은?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문항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점은?

'그' 또는 '그녀'로 이야기를 전하며, 인물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 중심으로 보여 준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문항 5] 다음 중 수필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대사와 지문만으로 이루어진다
②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쓴다
③ 반드시 꾸며 낸 사건이 들어간다
④ 운율과 행, 연이 중심이 된다

[문항 6] 다음 중 희곡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글쓴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다
- ② 서술자가 사건을 길게 설명한다
- ③ 무대 상연을 생각하고 대사와 지문으로 구성한다
- ④ 실제 경험을 차분히 회상하는 글이다

[문항 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목표했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 ① 우정의 소중함
- ②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
- ③ 가족 사랑의 가치
- ④ 자연 보호의 필요성

[문항 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진이는 같은 과 친구가 조별과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과제를 마친 두 사람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 ① 서로 도우며 쌓아 가는 우정
- ②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심
- ③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 ④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태도

[문항 9] 주제를 파악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글 전체의 흐름을 살핀다
- ② 반복되는 행동이나 말을 살핀다
- ③ 본문에 없는 내용도 자유롭게 더해 생각한다
- ④ 인물의 마지막 태도나 결과를 살핀다

[문항 10] 다음 중 소설, 수필, 희곡의 특징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소설 – 꾸며낸 인물과 사건
- ② 수필 – 자유로운 형식의 실제 경험
- ③ 희곡 – 대사와 지문 중심
- ④ 소설 –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함

• 학습 목표

- 👁 말하는 상황(상대방, 장소, 목적)에 따라 화법이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다.
- 👁 부탁하고 거절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구별할 수 있다.
- 👁 말하기의 목적(정보 전달, 설득, 친교)을 구별할 수 있다.
- 👁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1. 화법이란 무엇인가 - 상대방과 상황
2. 부탁하고 거절하는 말하기
3. 말하기의 목적 구별하기
4. 같은 말, 다른 의미 - 상황에 따른 효과

학습내용 화법이란 무엇인가 - 상대방과 상황

01 화법이란?

- 화법은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이다.
-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법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다.

02 화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 말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POINT 상대방

- 나이, 지위, 친밀도에 따라 말투와 표현이 달라진다.

POINT 상황

- 발표, 면접, 수업처럼 공식적인 자리인지, 친구와의 일상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POINT 목적

- 묻기, 설명하기, 부탁하기, 거절하기 등 말하는 목적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03 상황에 맞는 표현

- 같은 부탁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 친구에게: "이거 좀 봐줄 수 있어?"
- 선배나 교수님께: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확인하기

- 같은 내용도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
- 화법을 판단할 때는 내용보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나이, 지위, 친밀도)와 상황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를 함께 확인한다.
- 대화 상황(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을 먼저 파악한 뒤 그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인지 판단한다.



[문항 1] 다음 중 교수님께 요청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②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③ 야, 이거 뭐예요?
- ④ 이거 다시 말해 봐요.

[문항 2] 다음 중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로 자연스러운 것은?

- ① 과제 제출 기한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② 과제 언제까지 내야 돼?
- ③ 과제 제출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 ④ 과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항 3] 다음 중 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이 달라도 같은 말투를 쓰면 된다
- ② 상황보다 문법만 맞으면 된다
- ③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 ④ 화법은 높임말만 잘 쓰면 된다

[문항 4]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 이 알바 꼭 뽑아 주세요
- ②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 ③ 그냥 한 번 해보려고 왔어요
- ④ 시간 되면 해볼게요

[문항 5] 다음 중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 ① 안녕하십니까
- ②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③ 이게 완전 대박이에요
- ④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6] 선배에게 부탁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 ① 이것 좀 해줘
- ② 선배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 ③ 야, 이것 좀 해라
- ④ 당장 해주세요

[문항 7]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표현은?

(학생이 교수님께) "교수님, 저 지금 바쁘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 ① '교수님'
- ② '저'
- ③ '얘기하면 안 돼요?'
- ④ 없음

[문항 8] 다음 중 상황에 맞는 화법을 사용한 것은?

- ① 발표 중 "음... 그러니까 뭐랄까..."
- ② 발표 중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③ 면접에서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요?"
- ④ 교수님께 "네네, 알겠어요."

[문항 9] 화법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 ① 문장의 길이
- ② 상대방과 상황
- ③ 단어의 개수
- ④ 문장 부호

[문항 10] 다음 중 상대방에 따라 표현을 달리 쓴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구에게도 교수님께도 늘 같은 말투로 말한다
- ② 친구에게는 "밥 먹었어?", 교수님께는 "식사하셨습니까?"라고 말한다
- ③ 상황과 상관없이 반말만 사용한다
- ④ 상황과 상관없이 높임말만 사용한다

01 완곡한 표현이 필요한 이유

- 부탁하거나 거절할 때에는 상대방, 상황, 말하는 목적을 생각하여 알맞게 표현해야 한다.
-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이유를 설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02 부탁과 거절 화법의 구성

- 부탁: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표현(혹시, ~해 줄 수 있을까요) + 구체적인 요청
- 거절: 배려의 표현(죄송하지만, 미안한데) + 이유 + 대안 제시

03 대표 예시

- 거절할 때 “싫어, 안 돼”처럼 직접적으로 거절하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안한데 이번 주말엔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다음 주는 어때?”처럼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 부탁할 때에도 “이거 해.”라고 하기보다 “혹시 이 부분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공손하다.



꼭 확인하기

- 부탁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 거절할 때도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이 있는지, 이유나 대안을 함께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은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문항 1]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거절 표현은?

- | | |
|---------|------------------------|
| ① 못 해요. | ②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③ 싫은데요. | ④ 그건 안 할래요. |

[문항 2] 다음 중 부탁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이거 해 | ②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
| ③ 당장 해주세요 | ④ 이거 해야 돼 |

[문항 3] 완곡한 거절 표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상대방의 말에 바로 싫다고 한다.
- ②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고 거절한다.
- ③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쓰고, 필요하면 이유나 대안을 함께 말한다.
- ④ 대답을 피하면서 끝까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문항 4] 다음 대화에서 가장 적절한 응답은?

(선배가) "이번 주 회식에 올 수 있어?" (약속이 있어 못 가는 상황)

- ① 안 가요
- ② 죄송한데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 ③ 그날 바빠요.
- ④ 싫어요

[문항 5] 조별과제에서 역할을 부탁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 ① 이건 네가 맡아.
- ② 혹시 이 부분 맡아줄 수 있을까?
- ③ 이건 네가 해야 해.
- ④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문항 6] 다음 중 교수님께 기한 연장을 부탁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수님, 기한 좀 늘려 주세요.
- ②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출 기한을 조금만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 ③ 기한 늘려줘요.
- ④ 기한 안 늘려 주시면 곤란합니다.

01 말하기의 세 가지 목적

- 말하기는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OINT 정보 전달 : 사실이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말하기

POINT 설득 : 주장과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말하기

POINT 친교 : 인사나 안부를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말하기

02 목적별 대표 예시

- "오늘 3교시는 휴강입니다."
→ 필요한 사실을 알려 주는 말이므로 정보 전달에 해당한다.
- "일회용컵은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므로 설득에 해당한다.
- "오랜만이다. 요즘 잘 지내?"
→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친교에 해당한다.



꼭 확인하기

- 같은 상황이라도 말하는 목적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 설득하는 말하기에는 주장과 근거가 함께 나타난다.
-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면 정보 전달,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면 설득, 친밀감을 표현하려 하면 친교이다.
- 문장에 '주장+이유'가 있으면 설득,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만 있으면 정보 전달, 안부를 묻는 말이면 친교로 판단한다.



[문항 1] 다음 중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말은?

- ① 다음 주 월요일은 공휴일이어서 수업이 없습니다.
- ② 우리 오랜만에 같이 점심 먹자.
- ③ 분리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환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문항 2] 다음 중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말은?

- ① 도서관은 오전 9시에 문을 엽니다.
- ②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③ 오늘 발표 순서는 1조부터입니다.
- ④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

[문항 3] 다음 중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말은?

- ① 신청 기간은 금요일까지입니다.
- ② 급식실은 본관 1층에 있습니다.
- ③ 오랜만이야.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
- ④ 이 제도는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문항 4] 다음 말하기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학기 성적 정정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 ① 정보 전달
- ② 설득
- ③ 친교
- ④ 감상 표현

[문항 5] 다음 중 목적이 다른 하나는?

- ① 강의실 위치를 안내합니다.
- ② 시험 시간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 이 동아리에 가입해 보세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④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항 6] 다음 중 설득하는 말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유를 들어 주장을 펼친다.
- ②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한다.
- ③ 일정과 장소를 있는 그대로 안내한다.
- ④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권한다.

01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 같은 문장이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말투,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잘한다'는 상황에 따라 칭찬일 수도, 비꼬는 말일 수도 있다.

02 숨은 뜻(함축적 의미)

-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황 속에서 숨은 뜻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 표면적인 뜻과 실제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03 대표 예시

- 교실이 좁고 학생이 떨고 있을 때 '창문 좀 닫아줄래?'는 '좁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발표를 망쳤는데 무표정하게 '오늘 발표 진짜 재미있었어'라고 하면 비꼬는 말일 가능성이 있다.



꼭 확인하기

- 같은 문장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말의 숨은 뜻을 파악하려면 표현 자체보다 상황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 말하는 상황(맥락)이 무엇인지, 표면적 의미와 실제 의도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 문장 자체만 보지 말고 앞뒤 상황(누가, 언제, 왜 말했는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항 1] 다음 중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 ① "안녕하세요"는 언제나 같은 의미로만 쓰인다
- ② "잘한다"는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다
- ③ 모든 말은 상황과 관계없이 뜻이 하나로 정해진다
- ④ 말에는 숨은 뜻이 전혀 없다

[문항 2] 다음 중 “오늘 발표 진짜 재미있었어.”라는 말이 비꼬는 표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 ① 발표가 매우 좋았고, 웃으며 진심으로 말한 경우
- ② 발표 중 실수가 많았고, 끝난 뒤 무표정하게 말한 경우
- ③ 발표 주제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 ④ 발표 전에 기대된다고 말할 때

[문항 3] 다음 중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이거 지금 당장 해 줘
- ② 여기 좀 어두운 것 같네
- ③ 하지 마
- ④ 나는 괜찮아

[문항 4] 말의 숨은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
- ② 대화가 항상 더 정확해진다
- ③ 말하지 않은 뜻까지 모두 정확히 알 수 있다
- ④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항 5] 다음 중 표면적 의미와 실제 의도가 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 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렷하게 대답한 경우
- ②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숨을 쉬며 대답한 경우
- ③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인사한 경우
- ④ “안녕하세요.” 하고 처음 인사한 경우

[문항 6] 다음 중 상황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잘한다
- ② 수고했어
- ③ 대단하네
- ④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